

# 차원 축소

무인이동체공학과 17011882 김 우 혁

- 데이터 전처리 中 정규화, 차원 축소, 영상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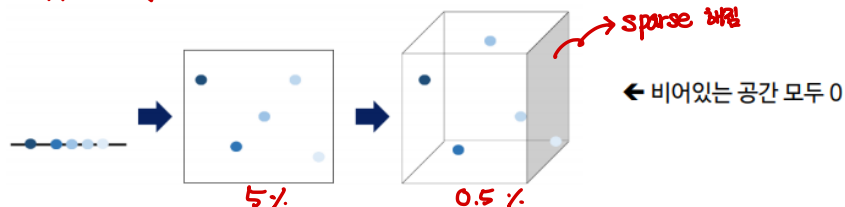
- 차원 축소는 데이터 분석 과정 중 전처리에서 주로 사용됨/ 목적: 고차원 → 저차원

## 차원의 저주

- 차원이 증가할수록 동일 정보량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는 지수적으로 증가

- 차원이 증가 ~ 모델의 성능 저하 → 개별 차원 내 학습할 데이터 수 Sparse 해짐

- 데이터의 수  $N$  < 변수의 수  $d$  → 차원의 저주 발생



- 일반적으로 intrinsic dimension(고유 차원)은 original dimension보다 상대적으로 작음 → 여기서, (고유 차원: 표현력을 상실하지 X 정도의 차원)

- 차원이 높을수록 발생하는 문제: Noise 증가, 성능 감소, 계산 복잡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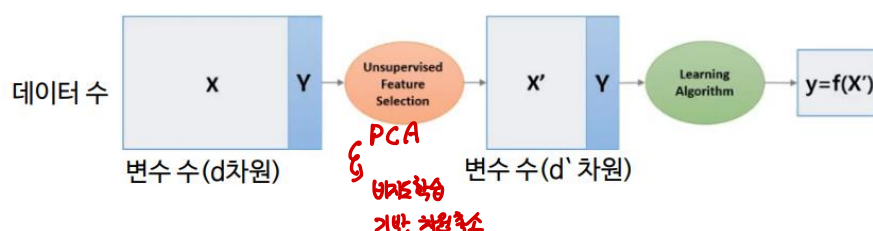
- 모든 변수는 서로 상관관계 0

- 해결책 → 중요한 특성만 사용!

- ★ 차원 축소 목적: 모델의 성능을 최대로 해주는 변수의 일부 셋을 찾는 것

- 지도학습 기반 차원 축소  $X, Y \rightarrow$  정답(라벨)이 있음  
학습결과가 피드백 되어 Feature Selection → 정답(라벨)과 예측값 비교 에러 보정 → 반복 학습

- 비지도학습 기반 차원 축소 지도학습처럼 피드백을 통한 Feature Selection 반복 없음  
→ 정답(라벨)이 없으므로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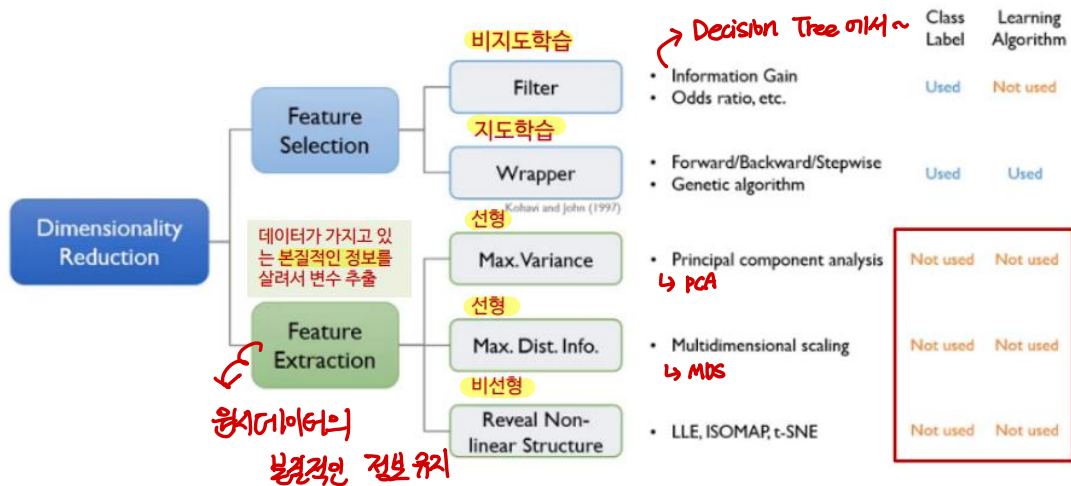


- ⇒ 변수/피쳐 추출: 예측 변수의 변환을 통해 새로운 변수 추출 (변환 함수 필요)
- 장점: 변수간 상관관계 고려 / 변수의 개수를 "많이" 줄일 수 있음
  - 단점: 추출된 변수의 해석이 어려움

$$Z = f(x_1, x_2, \dots, x_{100})$$

기존 변수 이용 변환  
선험적 결합  
새로운 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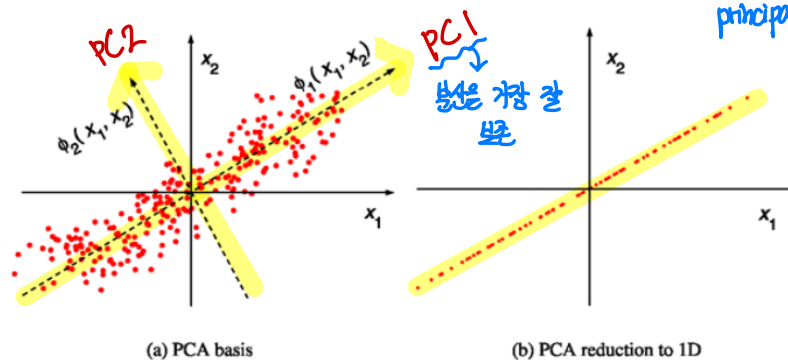
## 차원 축소 방법



## 차원 축소: PCA

### 주성분 분석의 목적

- 차원을 줄이는 비지도 학습 방법 중 한가지
- 사영 후 원 데이터의 분산(variance)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기저를 찾아 차원을 줄이는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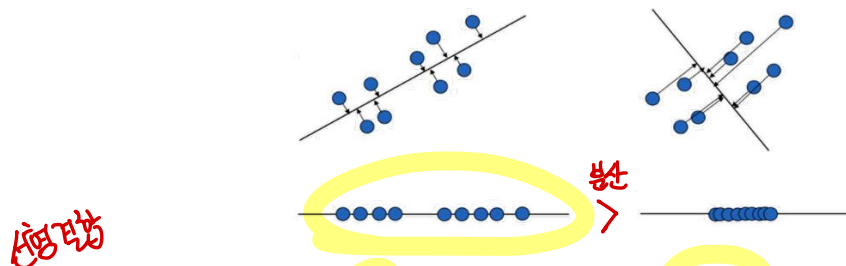


## ★ 원의 기본적인 질문

Q. 데이터들을 정사영 시켜 차원을 낮춘다면, 어떤 벡터에 데이터들을 정사영 시켜야 원래의 데이터 구조를 제일 잘 유지할까?

답변 ⇒ 선형 변환 → 하나의 벡터 공간을 선형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mapping 하는 것은 가림

- 데이터를 사영(projection)시킬 경우 손실되는 정보의 양이 적은 쪽의 기저(축)를 선택
- 아래 예시 → 왼쪽 기저(축)가 원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로 유지하므로 왼쪽의 기저 축을 주성분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음



⇒ 데이터(X) 사영 변환 후 (Z)에도 분산이 보존하는 기저(a)를 찾는 것

$$Z_1 = \alpha_1^T X = \alpha_{11}X_1 + \alpha_{12}X_2 + \dots + \alpha_{1p}X_p$$

$$Z_2 = \alpha_2^T X = \alpha_{21}X_1 + \alpha_{22}X_2 + \dots + \alpha_{2p}X_p$$

⋮

$$Z_p = \alpha_p^T X = \alpha_{p1}X_1 + \alpha_{p2}X_2 + \dots + \alpha_{pp}X_p$$

$X_1, X_2, \dots, X_p$ : 원 데이터 P개 변수

$\alpha_i = [\alpha_{i1}, \alpha_{i2}, \dots, \alpha_{ip}]$ : i 번째 기저(basis) 또는 계수(loading)

$Z_1, Z_2, \dots, Z_p$ : 각 기저로 사영 변환 후 변수 (주성분)

## ● 주성분 분석(PCA): 수리적 배경

- 공분산(Covariance): 변수의 상관 정도 / X: 입력 데이터 (n개의 데이터, d개의 변수)

$$Cov(X) = \frac{1}{n} (X - \bar{X})(X - \bar{X})^T$$

[dxd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dxn]      [nxd]

### ▪ 데이터 세트의 전체 분산(Total varianc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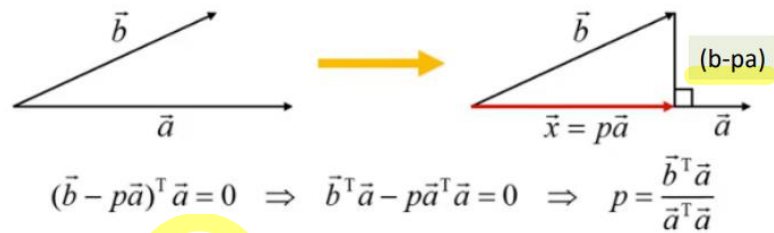
$$\rightarrow \text{tr}[Cov(X)] = Cov(X)_{11} + Cov(X)_{22} + \dots + Cov(X)_{dd}$$

예시)

$$A = \begin{bmatrix} 1 & 2 & 3 \\ 5 & 4 & 1 \\ 3 & 8 & 6 \end{bmatrix}, \quad Cov(A) = \begin{bmatrix} 2.67 & 0.67 & -2.67 \\ 0.67 & 4.67 & 2.33 \\ -2.67 & 2.33 & 4.67 \end{bmatrix}$$

1과 2의 상관관계  
대각선 다 0이면  
데이터셋의 전체 분산

▪ 사영 (Projection)



$$(\vec{b} - p\vec{a})^T \vec{a} = 0 \Rightarrow \vec{b}^T \vec{a} - p\vec{a}^T \vec{a} = 0 \Rightarrow p = \frac{\vec{b}^T \vec{a}}{\vec{a}^T \vec{a}}$$

$$\vec{x} = p\vec{a} = \frac{\vec{b}^T \vec{a}}{(\vec{a}^T \vec{a})} \vec{a}$$

If  $\vec{a}$  is unit vector

$$p = \vec{b}^T \vec{a} \Rightarrow \vec{x} = p\vec{a} = (\vec{b}^T \vec{a}) \vec{a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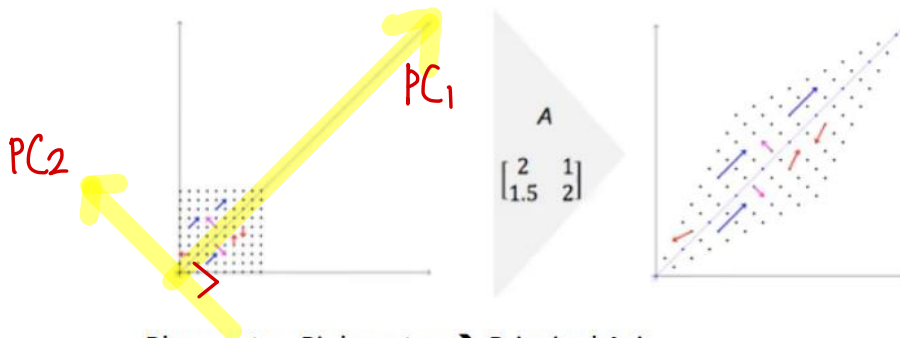
x: 사영후 벡터, p: 직교 사영을 위한 스케일러  
b = 데이터, a = 기저축 (PC)

▪ 고유값(eigenvalue)과 고유벡터(eigenvector)

$$A\mathbf{x} = \lambda\mathbf{x} \rightarrow (A - \lambda I)\mathbf{x} = 0$$

★ 벡터에 행렬을 곱하는 것은 선형 변환의 의미를 가짐

- 고유벡터는 변환에 의해 방향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
- 고유벡터의 크기 변화는  $\lambda$  만큼



Blue vector, Pink vector → Principal Axis

- ⇒ 행렬 A가 Non-singular 하다면, d개의 고유값과 고유벡터가 존재함
- ⇒ 고유벡터는 서로 직교함(orthogonal)
- ⇒  $\text{tr}(A) = \lambda_1 + \lambda_2 + \dots + \lambda_d$

★ PCA의 방향성 → 사영된 데이터 분산의 최대화

Step2: 최적화 문제 정의

- 데이터 X를 기저 벡터 W에 사영(projection)하면, 사영 후 분산은 다음과 같음

$$V = \frac{1}{n} (w^T X)(w^T X)^T = \frac{1}{n} w^T X X^T w = w^T S w$$

- S는 X의 covariace matrix →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해주며, 특히 특정 방향의 분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냄.
- ★ PCA의 목적은 사영 이후 분산 V를 최대화 하는 것

$$\max w^T S w$$

$$s. t. w^T w = 1$$

$$\Rightarrow S = \begin{pmatrix} 0.6166 & 0.6154 \\ 0.6154 & 0.7166 \end{pmatrix}$$

Step3: 최적화 문제 솔루션

-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(Lagrangian multiplier) 적용

$$\begin{bmatrix} \max w^T S w \\ s. t. w^T w = 1 \end{bmatrix} \rightarrow \text{우려 갖다 하는 것}$$

S는 X의 covariance matrix  
W는 S의 eigen vector  
람다는 S의 eigen value

$$L = w^T S w - \lambda (w^T w - 1)$$

$$\frac{\partial L}{\partial w} = 0 \Rightarrow S w - \lambda w = 0 \Rightarrow (S - \lambda I) w = 0$$

$$\text{Eigenvectors} = \begin{bmatrix} 0.6779 & -0.7352 \\ 0.7352 & 0.6779 \end{bmatrix} \quad \text{Eigenvalues} = (1.2840 \quad 0.0491)$$

Step4: 주축 정렬

- Eigenvalue에 해당되는 eigenvectors를 순서대로 정렬

$$\text{Eigenvectors} = \begin{bmatrix} 0.6779 & -0.7352 \\ 0.7352 & 0.6779 \end{bmatrix} \quad \text{Eigenvalues} = (1.2840 \quad 0.0491)$$

- $w_1$ 은 Eigen vector이고  $\lambda_1$ 은 대응되는 eigen value이다.
- (아래 식의 유도에 의하면)  $w_1$ 에 사영된 데이터의 분산은  $\lambda_1$ 이다.

$$v = (w_1^T X)(w_1^T X)^T = w_1^T X X^T w_1 = w_1^T S w_1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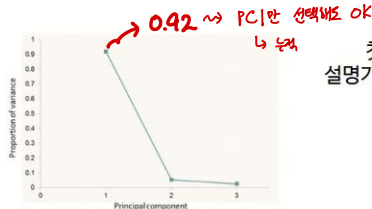
$$\text{Since } S w_1 = \lambda_1 w_1, w_1^T S w_1 = w_1^T \lambda_1 w_1 = \lambda_1 w_1^T w_1 = \lambda_1$$

- 첫번째 주성분으로 설명가능한 데이터 비율 =  $\frac{\lambda_1}{\lambda_1 + \lambda_2} = \frac{1.2840}{1.2840 + 0.0491} \approx 0.96$

★ 이렇게 주축은 2개의 주성분 중 임의 2개 이상의 성분을 선택해서 사용!

## 주성분 개수 선정 법 → 몇개의 주성분을 사용해야 할까?

- 선택 방법 #1
  - 고유 값 감소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Elbow Point에 해당하는 주성분을 선택
- 선택 방법 #2
  - 일정 수준 이상의 분산 비를 보존하는 최소의 주성분을 선택 (보통 70%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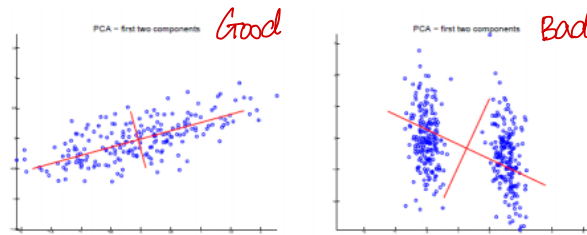


첫번째 주성분으로 설명가능한 데이터 비율

$$= \frac{\lambda_1}{\lambda_1 + \lambda_2 + \lambda_3} = \frac{2.7596}{0.0786 + 0.1618 + 2.7596} = 0.920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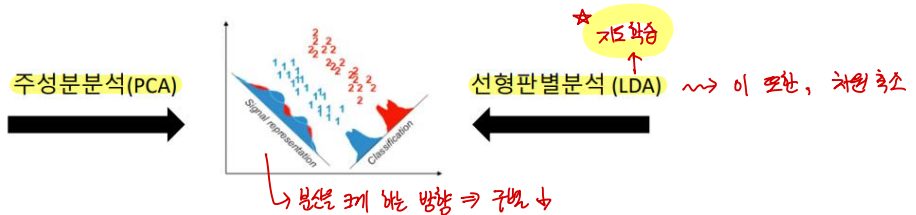
## ● 주성분 분석 한계

- [1] 데이터 분포가 가우시안이 아니거나 다중 가우시안 자료들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움



- [2] 분류 문제를 위해 디자인되지 않음, 즉 분류 성능 향상을 보장하지 못함

즉, 재가공된 데이터가 분류의 성능을 높여줄 것 같은 보람 X



## ■ 랜덤 PCA의 개념

- 자료의 크기 또는 특성변수의 크기가 매우 크면 주성분 W를 구하기 위한 SVD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 → 연산량 ↑
- 이런 경우 Randomized PCA가 유용
- Randomized PCA는 QR 분해를 이용하여 행렬의 SVD를 수행함

→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기 위한 노력 ~

## ■ 커널 PCA 개념

- PCA는 선형 변환이고 Kernelized PCA는 비선형 변환임
- SVM의 커널트릭을 PCA에서도 사용
- 특성 변수 x를 비선형 h(x)로 변환한 후 이에 대해 PCA를 하여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임

